

은혜, 사랑 그리고 사귄(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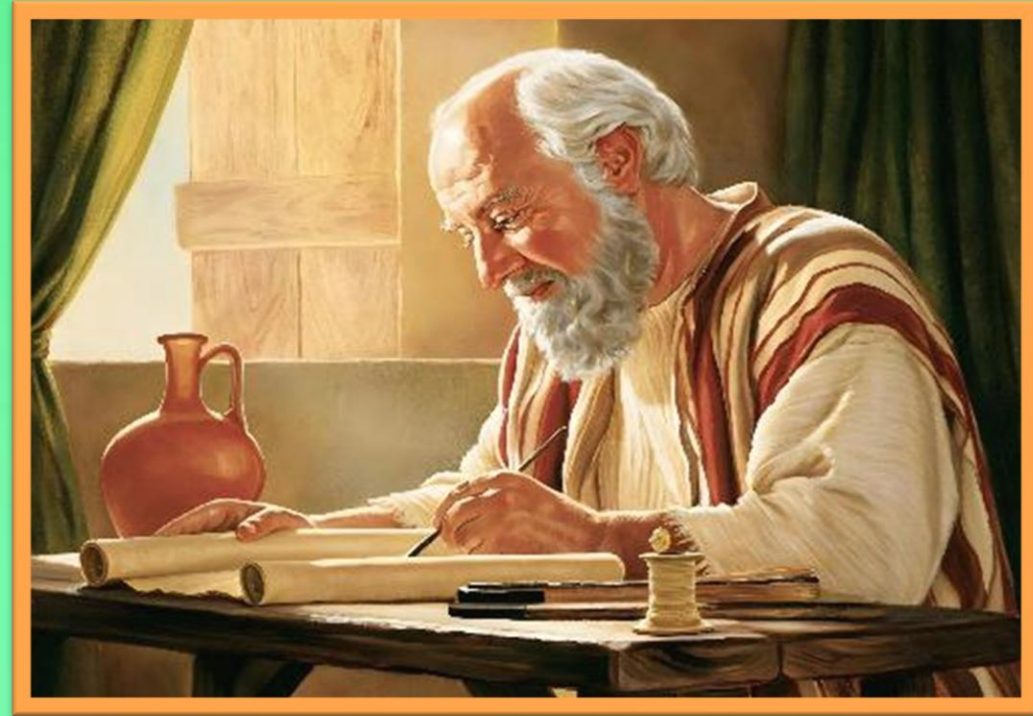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찌어다”

(고후 13:13)



바울의 서신 14개 중 13개는 약간의 문장 차이는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으로 끝마칩니다. (롬 16:24; 고전
16:23; 갈 6:18; 엡 6:24; 빌 4:23; 골 4:18; 살전 5:28; 살후 3:18;
딤후 6:21; 딤후 4:22; 딤후 3:15; 몬 1:25; 히 13:25).

하지만 고린도후서는 특별한 예외가 있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친교(사귄)의 축복기도로 서신을 마칩니다
(고후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친교(사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요해지도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후 8:9)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의 시작과 끝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언급합니다(고후 1:2; 13:14). 이 은혜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부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늘의 영원한 부를 버리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고후 8:9).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세상에 오셔서 사셨습니다(요 15:12).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빌 2:8).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의롭다는 인정을 하십니다(롬 3:24; 엡 1:7).

소망 안에서 기뻐합니다(롬 5:2)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십니다(고후 12:9).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롬 6:14).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왕 노릇 할 것입니다(롬 5:17, 21).



“하나님의 사랑” (1)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일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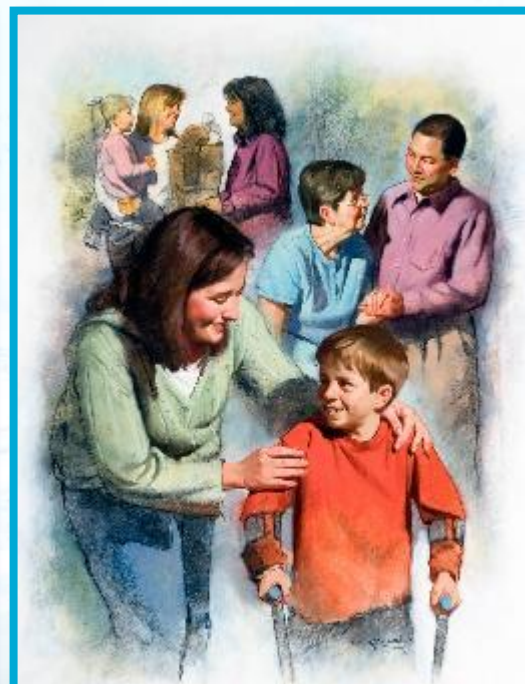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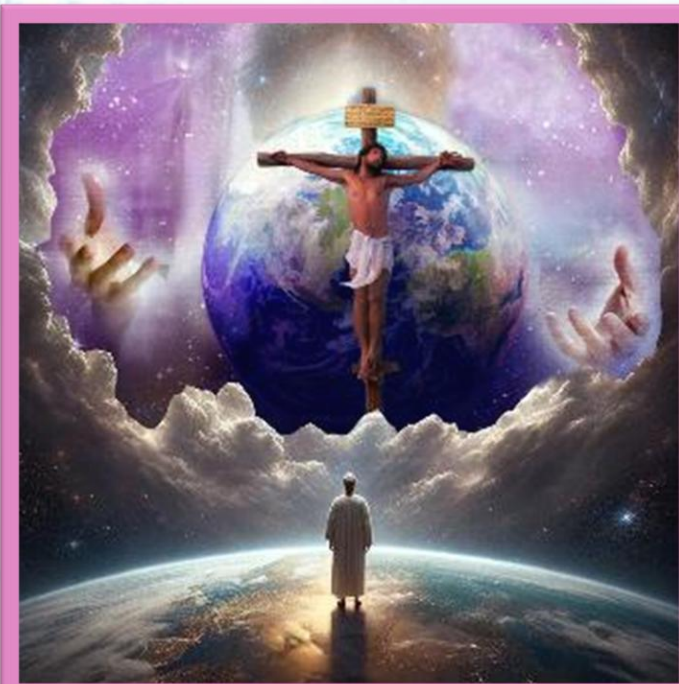
성경은 강력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합니다(요일 4:8). 하나님은 직접 창조하신 모두에게 자신의 사랑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는 새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사랑은 덕을 세우며(고전 8:1),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으며(고전 13:1-3),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고전 16:14)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게 재현된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예수님을 내어 주신 사건입니다(요 3:16).

우리는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천하신 사랑의 정신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 받습니다 (요일 3:16).



“하나님의 사랑” (2)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후 13:11)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 다른 속성들을 소개합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롬. 15:5)



“소망의 하나님” (롬. 15:13)



“평화의 하나님” (롬. 15:33)



“공활을 베푸시는 하나님” (고후. 1:3a)



“모든 위로의 하나님” (고후. 1:3b)



“사랑의 하나님” (고후. 13:11)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부어 주심
(요일 3:1)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엡 3:19)



하나님은 이 모든 속성들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분의 속성들이 넘치도록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롬 5:5)

“성령님의 친교(사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귄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고후 13:13)

바울은 자신과 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세 분의 인격체,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친교(사귄)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고후 13:14). 여기서 문맥상 바울은 성령님이 추상적인 영향력이 아닌 독립된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님을 40회 이상 언급하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단순한 영향력이 아닌 인격적 속성을 지닌 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시고 (고전 2:4)

하나님의 깊은 사물을 보여주시고 (고전 2:10)

가르치시고 (고전. 2:13)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고전. 3:16)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칭의의 옷을 입혀 주심 (고전. 6:11)

영적 선물들을 주심 (고전 12:7-11).

우리에게 구원의 인을 치심 (고후. 1:22).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겨 주심(고후. 3:3)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 (고후. 3:6)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심 (고후. 3:17)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벧전 1:2)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마 28:19) 순서로 열거하지만, 바울은 “성자, 성부, 성령”(고후 13:14)으로, 베드로는 “성부, 성령, 성자”(벧전 1:2)의 순서로 소개합니다.

세 하나님은 서로 간에 높고 낮은 서열이 없으시며, 각자가 한 구원의 계획 안에서 다른 역할을 수행 하시지만, 세 분 모두 똑 같은 속성과 목적을 위해 협력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사귄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 편지를 마칩니다(고후 13:14).

“이 세상의 언어나 그 무엇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함의 모든 충만함을 지니신 분이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은 거룩함의 모든 충만함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 가시면서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위로 하시는 분’은 거룩함의 모든 충만함을 지니신 성령님이시며,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하늘의 세분 하나님은 살아 계신 세 인격체로 존재하십니다. 살아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 위대한 세 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며, 세 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안에 살려고 노력하며 순종하는 백성들을 도와 주십니다.